



정본 C.S. 루이스 클래식 IV

예기치 못한 기쁨

탁월한 번역으로 되살아난, C.S. 루이스의 영적 자서전!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기쁨을 찾아 떠난 자기 삶의 영적인 순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것은 곧 그가 유년 시절 기독교에서 출발하여 무신론으로, 그리고 다시 기독교로 되돌아오기까지 겪어온 여정이다.

“이 책을 쓴 이유 중 가장은 내가 어떻게 무신론에서 기독교로 회심하였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기 위함입니다.” —머리말에서

“그의 걸출한 재능은 명예였다. 당신은 그것을 두 가지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곧 진술한 자서전 수준과, 일종의 품격 높은 스플릿수 수준으로…….” —이사벨 퀄리 /선데이 타임스 Sunday Times

“회심(마음)의 심리학에 대해 연구하려는 독자라면, 이 책이 지성적 면과 직관적인 면을 모두 갖추었으며 결국 이 두 가지가 같은 선에서 통합되는 작품임을 발견하고 매우 흥미로워할 것이다. 또한 재미 있는 책을 찾다가 우연히 이 책을 접어든 독자라면,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도 동일한 가치가 있는 작품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채드 월위 /세타데이 리뷰 Saturday Review

▶주요 차례: 어린 시절/빛과 그늘/위대한 노크 선생님/장군!/무기와 전우/새로운 시작/멍구!/시작

C.S. 루이스 저작 | 김유나 옮김 | 변형A5신 | 양장 | *2003년 1월 출간예정

정본 C.S. 루이스 클래식 I~III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영적 유희와 인간 본성에 관한 놀라운 통찰!

“탁월하고, 활기 넘치며,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책!” —저자 The Observer

김선형 옮김 | 믿음의 글 | 176 | 변형A5신 | 208면 | 양장 | 8,000원

순전한 기독교

타임즈! 국·천·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번역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독교 변증서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과 도덕성을 명료하고 지성적인 필치로 변론한 가장 뛰어난 책” —알리스 티 백그레스

경향 | 이종태 옮김 | 믿음의 글 | 186 | 변형A5신 | 352면 | 양장 | 12,500원

고통의 문제

고통이 쳐서하는 의문에 대한 명상하고 강인한 신학적 답변!

“한 권의 책을 아무 거리낌 없이 칭송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 (고통의 문제)가 바로 그 한 권의 책이다.” —카디언 Guardian

이종태 옮김 | 믿음의 글 | 189 | 변형A5신 | 248면 | 양장 | 9,000원

The Great Divorce

The Great Divorce

20세기의 『신곡』이라 불리는 흥미진진한 책, 지금 언제나 곳에 사는 혼령들이 천국의 얹져리로 소리를 가서 겪는 여러 사건들과, 그들의 천사와 성도들과 나누는 여러 대화를 통해 삶과 신앙의 본질 등을 펜타지 형식으로 보여 준다.

김선형 옮김 | 변형A5신 | 양장



A Grief Observed

58세에 결혼했다가 4년 만에 불芝별로 사랑하는 아내 조지아를 잃게 된 루이스가, 자신의 슬픔을 일기 형식으로 써 내려간 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가 정직하게 표현되고, 또한 정직하게 극복 승화되고 있다. 루이스의 심정이 가까운 책.

이종태 옮김 | 변형A5신 | 양장

A Grief Ob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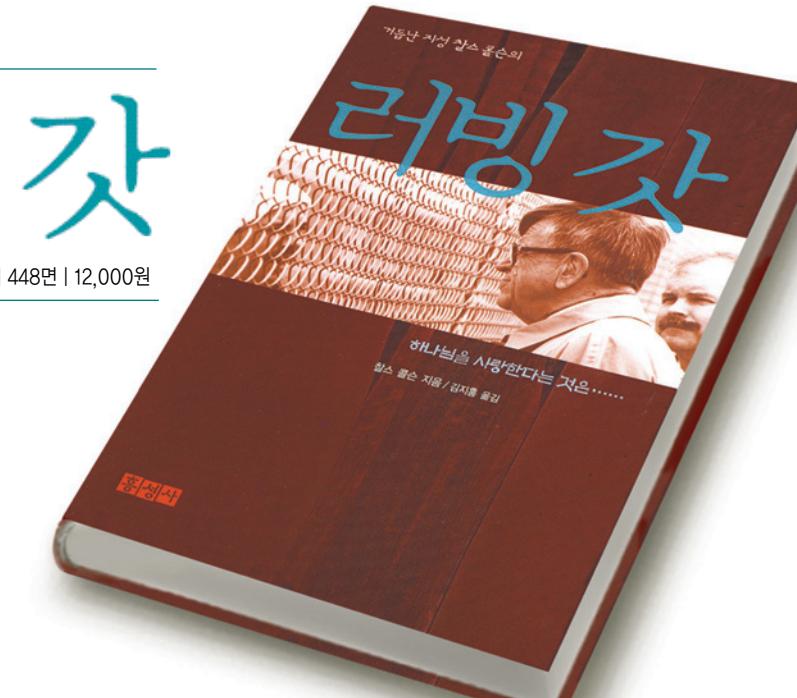
Surprised by Joy Surprised by Joy

책의 선물

극적으로 회심한 어느 지성인이 파고든 화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거듭난 자성 찰스 콜슨의 러빙갓

찰스 콜슨 저 | 김지수 옮김 | B6변형 | 양장 | 448면 | 12,000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고백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여지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는가? 그 고백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헛되며 낭용하고 있는 않는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거듭난 자성 찰스 콜슨이 써 나가는 대답은 독보적이었다.

이 책은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특별고문이었던 저자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하루아침과 짜수로 전락, 절망 같은 고도의 어둠 속에서 급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의 깊은 전통에서 길어 온 풍부하고 짜임새 있는 이야기들과, 익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체 문장으로 그 대답을 풀어 나갔다.

“당신이 이 책을 읽을 때 하나님과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그리고 자금 비록 최악의 시기나 보내고 있고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머리말 중에서

한·국·의·독·자·들·에·게



순종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 문화를 변화시킵니다

한국에서 『러빙갓』이 새롭게 출간되다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다른 많은 미국인처럼, 저도 한국인들에게 대해서 특별한 친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1953년, 미 해군의 소대를 지휘하도록 소위로 임명되어 한국으로 파병되었고, 저는 한국인들이 그토록 애써 지켰던 자유를 수호하고 불사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저는 마침내 한국에 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영예로운 이유 때문입니다.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

들은, 자신이 이 책을 읽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해 줍니다. 물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이 책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 자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문양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 줍니다.

지난 80년대 말, 『러빙갓』이 러시아어로 번역된 이후 저는 매우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세비아에 있는 마드리드 수용소의 한 수감자가 저의 책에 관해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러빙갓』 한 권을 감옥에서 기꺼스로 벌여 놓았습니다. 그들이 참가한 별당에 디자인한 볾

되어 수감자들이 땀마다 흐릿한 틀을 통해서 풀려가며 읽었다고 합니다. 저의 선교 동역자는 3,000명의 수감자들이 그 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구속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고 전해줍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 그 별명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하나님에 여려분의 나라에 세우신 변성한 한국 교회와 나눌 수 있다

고 생각하니 흥분되는 마음 얹을 수가 없습니다.

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나라에 영적 부흥이 지속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러빙갓』 한 권을 감옥에서 기꺼스로 벌여



지면 안내

도전 인터뷰

김양재

《남마다 큐티하는 여자》



지우철

《요셉의 회상》

책으로 돌아본 2002년

—오피니언 리더가 말하는 ‘올해의 책’

3

연말연시 선물하기 좋은 책

2002년

홍성사 베스트셀러

1 참으로 신실하게

2 순진한 기독교

3 청년아, 울더라도 뿐이라야 한다

4 고통의 문제

5 성령을 아는 자식

6 스크루베이트의 편지

7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8 2003 예배와 설교 핸드북

9 회복의 신yan

10 참으로 신실하게-Audio

11 새사자반

12 새벽을 깨우리로다

13 비전의 사람

14 매일 기도 수첩

15 치유하는 교회

16 암탉들, 뒤를轱는 영성의 길

17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들

18 회복의 목회

19 한밤의 소리

20 고맙고 다시 세워라

김선희

*2002년 1월부터 11월까지 판매부수 기준.

